≪應制詩註≫ 解題

權 泰 檍

《應制詩註》는 世祖代의 權臣인 權擊이 祖 陽村 權近의 〈應制詩〉에 註를 붙인 것이다. 應制詩(및 明 太祖의 御製詩) 중의 字句에 대한 註釋이기 때문에 一絲不亂한 體系를 갖춘 것은 못되지만, 우선 그 分量이 많은 편이고, 그 내용이 우리나라 역사·지리 등에 관련되는 것이어서, 朝鮮前期의 역사인식 내지 문화적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한 길잡이가 된다.

여기서는 본서의 이해를 돕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대체로 (1) 權擊의 生平, (2) 權近의 應制詩의 저술경위, (3) 刊行경위 및 版本, (4) 權擊의 《應制詩註》의 구성의 순서로 서술코자 한다. 본서의 史學史的意義는 解題의 본질상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先學이 이미 고찰한 바 있으므로(1) 여기서는 생략코자 한다.

Ţ

權擊(1416~1465)은 世祖代의 權臣으로서, 世祖 집권의 계기가 되는 癸酉 遠難(1453년)에서 韓明澮와 함께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世祖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는 功臣으로서 중앙정계에서 활약한 인물이었다. 그의 家門은 麗末의 權臣 權溥를 있는 名門이었고, 祖 權近, 父 權踶는 모두 朝鮮 開國 이후 主文의 위치에 서 있었다. 權擊도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어려서부터 讀書를 즐겼으나 科擧에는 뜻이 없었다. 사람됨이 豪宕하여 大志를 품었고 器字寬偉・沈靜寡言하였다. 일찍부터 韓明澮와 管鮑之交를 맺었는데, 일찍기 서로 말하기를,

男兒로 태어나 창을 휘두르고 말을 달려 변방에서 功을 세우지 못할진댄 마땅히 萬卷書를 읽어 不朽의 이름을 세율지라

⁽¹⁾ 韓永愚, 1981, 《朝鮮前期史學史研究》(韓國文化研究所, 서울大 출판부), pp. 53-59.

하였다 한다. (2)

擊은 일찌기 父 踶가 妾에 感하여 嫡妻를 소박함을 諫하였다가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는데, 이후 집을 나와 韓明澮와 함께 名山大川을 찾아 다녔다한다. 책을 지고 가서 이를 읽다가, 문득 돌아올 바를 잊었다 한다. 그리하여 젊은 시절에 이미 文名이 높았고, 國家事를 論할 때는 그 談論이 물 흐르듯 하여 당시 사람들이 白衣宰相이라 하였다 한다. (3) 그가 仕宦 길에 나선 것은 그의 나이 35세 되던 해, 사람들의 勸에 따라 赴擧하면서부터였다. 이때 그는 "一擧連三魁"하여 世人의 注目을 끌었다. (4) 그는 얼마 안있어 당시 首陽大君으로 執權의 야망을 키우고 있었던 世祖와 가까워지게 되어 그의 侍從이 되었고, 그의 命에 따라 武經에 註를 닫기도 하였다. 兩人이 癸酉靖難에서 合心할 기반은 이때 다져졌고, 이후 世祖는 王位에 오른 후에도 그를 거의 대등한 同志로서 대우하였다.

世祖의 집권 후 그는 靖難一等功臣에 封해지고, 곧 이어 吏曹判書의 職을 除授받았다. 이어 佐翼功臣一等으로 藝文館大提學이 되고 吉昌君에 封해졌다. 1458년(世祖 4) 修撰官으로《國朝寶鑑》을 편찬하고 右賛成에 승진, 이후左賛成・右議政을 거쳐 1462년 左議政에 올랐다. 이듬해 府院君으로 進封되었다.

權擊은 성격이 호방하고 글을 잘 하였으나, 營產에 힘써 南山 밑에 지나 치게 사치한 집을 짓고, 자가의 노비들이 士族을 욕보여도 이를 방치하는 등, 당시 世人의 비난을 들었다 한다. 그의 성격의 일면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逸話가 전한다. 老年에 그가 병이 들어 開城의 紺岳에 祀를 올릴 때 마침 風雨가 물아쳤다. 세상에 전하기를 紺岳의 山神은 唐將 薛仁貴였는데, 이때 權擊은 노하여 소리치길 "神是唐家之將 我爲一國之相 雖先後不同 勢亦相當 何相迫"이라 하였다 한다. 이에 무당이 神을 대신해 怒해 말하길 "네가어찌 감히 나와 더불어 항쟁하는가" 하였다 한다. (5) 이후 돌아와 병이 들었다 하는데, 이 일화는 한편으로 그의 비굴함이 없는 中國觀을 示唆하는 바 있어 흥미롭다. 그의 字는 正卿, 號 所閑堂, 諡 益平이다. 개인 文集으로

^{(2)《}世祖實錄》卷 35 世祖 11年 2月 癸未, 權擥의 卒記 참조.

⁽³⁾ 서울大 도서관 編, 1978, 《國朝人物考》, pp. 43-45 및 《端宗實錄》卷 13 端宗 3년 正月 庚午條, 《世祖實錄》卷 7 世祖 3年 4月 丁酉條 참조.

^{(4)《}國朝人物考》 同上.

^{(5)《}世祖實錄》卷34 世祖 10年 9月 壬子條.

《所閑堂集》이 있다 하나 傳해지지 않고 있다.

權近(1352~1409)은 魔宋鮮初의 性理學者로서《入學圖說》·《五經淺見錄》등의 저술을 통해 性理學의 전과에 힘썼고, 또 文章家로서 文翰之任을 맡아, 開國初의 外交文書 등의 작성에서 큰 힘을 발휘하였다.

고가 여기 소개되는 應制詩을 짓게된 것은 1396년(太祖 5) 表箋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入明해서 였다. 이때의 表箋문제는 明帝가 우리나라에서 明에보낸 表箋의 글귀 중에 불손한 곳이 있다고 트집잡고, 이의 作者로 평소 明帝가 미워하던 鄭道傳을 明으로 보낼 것을 고집함으로써 일어났던 것이다. 이로써 兩國의 外交관계는 硬塞되고 鄭道傳은 전부터 준비해오던 遼東攻伐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權近은 위의 表箋의 潤色에 참여한 책임이 있다고 自願 入明하여 明帝의 의혹을 푸는 한편 應制詩 24篇을 지어 그의 文名을 中國에 떨쳤다. 應制詩 24편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지은 것인데, 1396년 9월 15일에 8首, 同 22일에 10首, 10월 27일 6首였다. 이 應制詩로 外交的 難題는 해결되었고, 權近은 그 學識 및 文才를 인정받아 文淵閣에 나가 明의 學者들과 經史를 講論하였고, 明帝로부터 市街를 유람하고 연회를 배풀어 받는 우대를 받게 되었다. 明帝는 또한 御製詩 3首를 지어 權近에게 내렸다.

이제 權近의 應制詩를 본서에 수록된 순서대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 (1) 洪武 29年 9월 15월 作(8萬) 王京作古、李氏異居、出使、奉朝鮮命至京、道經西京、渡鴨綠、由遼左、 航珠 州海、
- (2) 同 9월 22일 作 (10首) 始古關闢東夷主,相望日本,金剛山,新京地理,辰韓,馬韓,舟韓,新羅, 耽 羅,大同江.
- (3) 同 10월 27일 作(6首) 聽高歌於來廣,閱伶人於重譯,引觴南市酩酊而歸,開懷北市落魄而還,醉仙暢 飲遊目於江粵,鶴鳴再坐閱環佩而珊珊.

처음의 8首가 本國廢興·道塗經過之所를, 다음의 10首가 本國離合之勢·山

河之勝・外國之隣吾境者를 읊은 것이라면(6) 마지막의 6首는 權近이 중국에서 참여했던 연회에서의 醉興을 노래한 것이다.

詩의 내용은 中國과 明帝의 덕을 찬양하여, 朝鮮의 中國에 대한 事大的 관계를 일단 인정한 위에서, 우리 역사의 유구함과 독자성을 노래한 것이 다. 權近의 역사인식의 事大的 성격에 대해서는 論者에 따라 엇같린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나, 본 응제시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당시의 상황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權近의 응제시는 그 앞에 明帝의 御製詩 3首가 부록되어 그의 詩文集인 《陽村集》의 벽두에 수록되어 있다.

II

陽村의 應制詩는 그가 아직 生存해 있었던 1402년(太宗 2)에 王命에 의해 독립되어 刊行된 바 있었다. 太宗은 應制詩와 御製詩를 보고, 東人으로서 天子의 御製詩를 받은 영광을 기리는 의미에서 知申事 朴錫命으로 하여금 議政府에 내려 板刊・施行했다는 것이다. (7) 이때 權近이 李詹에게 序文을 請하여 이를 앞에 싣고, 뒤에는 明의 名士인 陸顯,端木孝思,祝孟獻의 跋 (頌詩,頌辭의 형식),權近 자신이 應制詩 제작의 연유를 밝힌 「到本國書」 (1397년 作)를 덧붙여 간행한 듯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太宗 때의 刊本이 마멸되므로 世宗은 江原道 監司 權孟孫에게 命하여 이를 다시 重鋟케 하였다. 이는 대개 1438년 (世宗 20)의 일이었던 듯하다. (8) 이때 다시 權近의 從子인 權採의 跋이 추가 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두 刊本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 보다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註釋이 加해진 적이 없었던 듯하다.

한편 權擊은 旣存의 刊本에 만족치 못하여, 여기에 註釋을 더하고 보완하여 印刊할 준비를 하였다. 그리하여 1457년(世祖 3, 天順 1) 중국사신 陳鑑, 高閏의 跋文을, 1459년 그가 入明했을 때 또 倪謙의 跋文을 얻었다. 이때 그는 靈谷寺住持 玄極頂禪師가 明 太祖 高皇帝의 同一한 御製詩에 次韻한 詩를

⁽⁶⁾ 本書, 李詹의 序 참조.

⁽⁷⁾ 本書, 權採의 跋 참조.

⁽⁸⁾ 이 사실을 傳하는 權採의 眩이 이때 쓰여진 사실로써 그렇게 추정됨.

얻어 은 듯하다. (*) 여기에 다시 1460년 張寧의 跋을 얻었다. 한편 權擊이 祖 近의 應制詩에 註釋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1460년이었다. 權擊 자신의 말에 따르면 이해 봄에 註釋을 시작하여 다음해인 1461년 가을에 脫藁하였다 한 다. 그러나 刻板은 탈고에 앞서 이미 1461년 봄부터 家塾에서 시작되어 다 음해인 1462년 10월에 작업을 끝냈다 한다. (10) 그리하여 權寧은 본서의 刊 行을 계획하여 明人의 序文을 모으기 시작한 지 5년만에 이 일을 끝낸 듯하 다. 이 刊本(權寧本)이 현재 서울大 도서관에 가람문고 귀중본으로 傳하고 있다. 그러나 이 刊本은 앞뒤가 落張되어 원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 權擊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약간의 보완이 가해져 覆刊되었다. 이는 1470년 權近의 外孫인 徐居正에 의한 것인데, 이때에는 다시 明人 僧右善世 溥禪師의, 御製詩에 대한 應制詩가 玄極頂禪師의 그것 뒤에 追錄되었다. (11) 이 刑本을 徐居正本이라 한다면, 兩本은 그 字體나 크기가 전혀 동일하여, 그 체제도 同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2) 徐居正本은 현재 본문 위의 공간이 약간 파손된 채 완전한 모습으로 傳해지고 있는데 紙質이나 인쇄효과는 權擊本보다 떨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權近의 응제시는 몇차례에 걸쳐 보완이 가해지면서 印行되었던 듯하다. 이밖에도 수종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國立 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앞뒤로 落張되었으나 서울大 徐居正本과 同一한 듯하고 髙大 소장본은 그 내용의 구성은 역시 서울大 徐居正本과 同一하나, 그수록된 순서가 다르고 字體의 모양이 다른 점으로 미루어, 다른 판본으로 생각된다. (13)

 \mathbf{N}

權擥의 주석이 단순한 字句의 해석에 끝나는 것이 아님은 쉽게 알아볼 수

⁽⁹⁾ 權採의 同 應制詩 뒤의 1460년(天順 4년) 作 謹誌 참조.

⁽¹⁰⁾ 權採의 跋 참조.

⁽¹¹⁾ 同 應制詩의 마로 뒤에「偶閱雨軒集 得此三篇 得吉昌所未得 不勝悲喜 追附 于後 龍集庚寅仲秋節 外孫……徐居正謹誌」라고 一行 낮추어 쓰여 있다.

⁽¹²⁾ 현재 서울大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權擊本은 뒤에 權近의「到本國醫」에 서 시작하여 襲寧의 跋까지가 실려있고, 그 뒤는 낙장되었는데, 그 순서가 완전히 일치하고, 跋이 張寧의 것에서 끝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徐居 正의 追加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동일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¹³⁾ 본인이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상 2 판본 뿐이었고 기타의 판본은 확인 할 수 없었다. 필사본은 이밖에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있다. 그가 애초에 註釋을 시도하게 되는데는 자기 家門의 영광을 빛내기 위한 의도가 없지 않을 것이지만, 그는 이를 통해 자기나름의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전개하려 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그는 應制詩 및 御製詩의 제목이나 詩句 중에서 적당한 단어를 골라 그의 역사인식을 전개해 주고 있다.이러한 그의 註의 성격상, 마지막 연회의 홍겨움을 노래한 6편의 詩에는,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다만 字句 해석을 위한 간단한 註가 붙어 있을 뿐이다. 또 그 註의 내용도 우리나라의 역사와는 일단 無關한 것이다. 이를 除 사하고 각 詩에 붙어 있는 주요 註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御製詩

- ① 鴨綠江上:漢四郡의 설치 및 위치, 고구려의 對隋·唐 抗爭, 朱蒙說話, 溫祚 說話.
- ② 高麗古京:後三國과 王建의 高麗건국, 辛旽과 麗末의 政情.
- ③ 使經遼左:遼東을 中心한 諸族의 離合集散・相爭.

(2) 應制詩

- ① 王京作古:開京의 설치 경위.
- ② 李氏異居:李成桂의 武勲 및 建國說話.
- ③ 道經西京: 西京을 中心한 역사의 전개(檀君 箕子 衛滿 고구려의 遷都, 箕子의 유적, 東明聖王 및 檀君祠 등).
- ④ 始古開闢東夷主:檀君神話.
- ⑤ 相望日本:日本의 皇室과 풍속의 대개.
- ⑥ 金剛山:金剛山의 地誌。
- ⑦ 新京地理:漢陽의 地理 및 漢江의 流域.
- ⑧ 新羅: 朴赫居世說話・昔脫解說話・金閼智說話・金首露王說話,金海府招賢臺嶌 始仙人說話,白頭山에서 鵠嶺에 이르기까지의 山勢.
- ⑨ 耽羅:三聖人說話 및 耽羅의 地理.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權擊 註釋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관련된 神話 및 說話로 이루어져 있다. 이밖에 歷史地理에 관한 기록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朝鮮前期의 역사인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될 자료라 하겠다.

\times \times \times

한편 여기에 축소 영인하여 수록한 《應制詩註》는 權擊本을 中心으로 하고 落張된 부분 및 字體가 좀먹은 곳을 徐居正本(1~24, 49, 50, 141~152面)으 로 보충한 것이다.

校正 整新作品 一個
育 崔 等 成蘭連維思

當 則 告 歷 年

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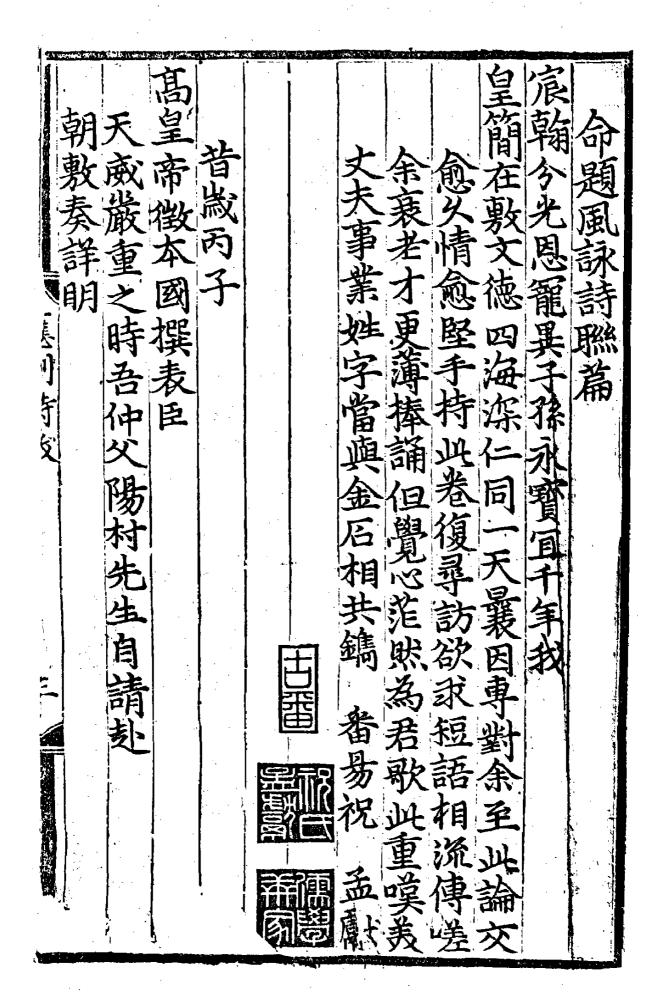
	對稱				
太祖高皇帝嘉其為實恩禮優厚	朝鮮陪臣權近可遠當洪武丙子夏被書朝鮮詩集後		命副使山陰高閨居正書	上出學文体邓太順丁丑夏六月上	其末以勉先生之後且云時
	徴来朝		影響		
	茶院	河	宝兴 西班		

	6	チ		王 结n
	巨山山	之一	爭	聽制製
心打馬	紧 條學	學至	造王シル	被諸賜
氣則」	如此知道	地觀之一	徳傳	殊當升。
者符	與負重度調因以呈	田州	WITH	恩時近
指塞?	大意里	焊 快	而此之盖	殊思保終茅
鬼听话	生完五年月二年憲國里平	巡育生	近之詞文	
神河多草	月中	全处	穷以	歸近
護美	半壽	之善	不識	報能
幾珠	数 校	溢	先	初
持王子	万 梓	校言	生	款 對
以在	料料	外	殿	對竟動
為運	好 土	而	较何	動
用彩,	1 字	於言外而先生之恒	生其殿欤何不伐之	
双持歸以為世用腹題外王之在 匪光彩輪菌	历中年巧夫見青野梓碑有土者子子務	連	校	
人名四	いし、一つなが	· 14]	· ·	

	帙 乃	物 之				
太祖高皇帝於金陵入朝我	美山川草木之秀恨無可以 歐中華者忽得	皇明府陋必欲採一物歸以遺人連日喜其衣冠文物一里明府陋必欲採一物歸以遺人連日喜其衣冠文物	今以為奇玩今余奉使朝鮮其地亦絕域也雖才不若張騫使經域得出刑芍樂蒲萄義於種落人間至	經遊講官東吳陳鑑緝 思書 聽聽 一般語 是語	國史脩撰儒林郎無	賜進士及第翰林

目

命議政府判板以傳廠後年久字刻我賜覽以為稀代之事宜圖不朽即	然之王聞之嘉嘆耳對其詩而如是及先生東還	名為天下楊國之華非有格天之德間世之才安能賜奎章璨爛日月交輝宛有虞朝君臣賡歌之意由是	御製三篇以制如流皆臻絕妙又蒙	命題賦詩二十四篇應息前後絕倫以至	帝乃感悟非惟
------------------------------	---------------------	---	----------------	------------------	--------



196		韓國文	化 3	
先帝眷願甚優渥	步稱才賢 德 昔梯航越 別汪渭興酣落筆生雲炯教育英寸遍東土三韓雅	春妍程朱實學得心授春秋大義衆徵玄宵中風雅理心與大化同周旋岫雲雅鳥住還往寒松疎竹爭	易付先生青 早無 場付結屋 水山前 坐 馬今古論性 電電 電路	奉使翰林史官兵部主事金陵端水孝思道記以恭三月一日

امريندي منجينا إيطال الأكام	(9)	and the second second	Magazini Cara da Cara	No. 10 (1986)
	御	太		
命	全无於然如大空之日月照曜今上御製朝鮮鮮京等詩 脚朝鮮國陪臣權可遠	祖大		
詩可	光朝朝	髙明	序觀	漢為
以读多	经解解	草	以民	志同日
潮賦	发王	帝	記風	日四四
民王	石京陪	神	之别	古
国京-	大多臣	777	維子	者
之作	空诗權	理	我绿	者
漫士		孟	2	採
善走	日漆	鉛	=	法
必す	E	唐	石	3
女 果	招	唐 虞之盛台	夢以記之維我 製民風孔子録之三百十	官
休人、明日	陸	か		1
即当	入	野	世	4
法法	3	当	闹	3113
处时	口フ	六批	松	かか
與石-		7四	以上	到
子子		過	首	7
本自諸豈		24	义	人
西县		1人	孟	阿
小水		寶	多	()
水瓜		12	逐	詩
不厌			17	

相别思逐晴齊寫影飛	逢菜長入夢海連鄉國各田	宣特賜於雲統	髙皇眷愛親題字中使傳	 	天上冰	禁闡朝朝	光侍	間設觀
淮南陸題伯膽	心歸春風							

命題賦詩若干首	賜宴	内府賜衣遊街三日以	賜食	恩命随	帝赦不問欽蒙	朝		帝遣使臣徵本國撰表者臣近以與於潤色白	洪武丙子夏	聖澤遊街三日醉扶廻
							. g \$ 60 \$			

内自宣	天 百 月 開 得 被	帝甸山河北北對	看纖手捧金盃棒數奉切南臨	 	鶴鳴再坐聞環珮而珊珊切佩聲	皇恩祝第年	一聲清唱點愁盡羈旅离也作深感	包之半环八环也用八物牛羊麋鹿屬不狗狼羞膳
				資瑟况				

美國		感	命題	-}-	太誠	王事	络	沛 或作
來寫	來村	歌	省	旦		7		然へ
會	應掛。板	於來		さ				機觀
F	制禮,而部言作尚言	眉龍		H				灰意
	奉書分	き来人宿						夏禹貢江
		习楼		•				宗漢 諸朝
5	板跃动	赴 有 百						侯宗
	有処人列列	引達を			,"	`		大海子註
	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	了军				-		不名見
	共如是命	看る場合		,			! 1	朝正

THE PERSON NAMED IN COLUMN TWO IS NOT THE PERSON NAMED IN COLUMN TWO IS NAM

也超烏窄區地級也 •

	rang 1953 persagai menggan penggapan alkan seba			
錫大號畫	王東			
承問	功國			
	成多撫難	操徳大自其之小恭	村齊藥衣韓陵世之	下石 覆室
持	民國	尤風征恩 大巍戦王 者為姓已	州即丁桓	動隨夕風
	惠、患聲	一録難陷亥	山懿譲足	以南三十下
	事吾	云姑倩辛	忠后三角清陵年棄	舌漢
		神及謙原	通也 質人 定在正間 如 一 主	帝良
		第十不年	恭德京卻 愍郡黄從	門為其韓
		可間勝我	王北州市次十禄松	两 种 使疆
		社 太 功社	农里海边	此素

The second secon

和何民知太浚年在昌隙 星兵樞聞五申稷昏切祖治大 號馳禍趙變十 報各奏起人我人机我滿 為漢而國即樂聞牢倡 心隍平陽祖名遣天 讓義恭風舉恭 再推定皆國定不愿革 體詔文樂帝三戴與歸臣 館乃詔乃臣左附民王會 任註後稱質又民餐讓庶洪澤芝而反群

州是郡郡五察開縣百

七定今縣光	命題又首	洪武二十	制應
一 西部坊 里東部坊七里七城五部坊里東部坊里東部坊七里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	と 易鳥親州則宮闕立市南南 新羅改松缶郡高麗太田 王京今開城留守府太	九年九月十五日	朝鮮國陪臣權
方三縣 不可言縣 不可言縣 不可言縣 不可言縣 不可言縣 不可言 不可可 一世 工工	解 相 二 中 展 大 数 五 都 五 着 条 条 条 条 条 条 条 条 条 条 条 8 8 8 8 8 8 8 8	探豎式言	作近製進

					Maria de la composição			
			天家而		; ;	里地	t	
			办			款 使	7. Ja	
			MY Mr	世	渡	使	請	
			略	修	資	米	係)
			旣	輸	ا به سین ا	頻	玉	使経資左
Rank Pales		200		頁長	統	少	免	法
都館	外不够	偶	<u>.</u> :	長	山	.的.	玖、	坦左
想大	1.4114 A 1/1/2	関而		木	河	些選		/
/ / / / /	正意	虾			開			
和子物	大岩	佳			宇宙萬	海		
华成	夫的	福			面站	果好		
卢均	議于	业			料	版	.	
低館	政後	三姓	• [平日	秋	1	***
学事	府前	篇	j		月	歸	·	
謹同	在其	得		-	麗	歸漢果		
法和	外外	. i	1.		雪	果		
25	不替其数	古自			月麗雲霄速	下		
經	典作	THAT I			漾	军		
必事	藝利	大击	•		惠	駒		
1	文良	?待) ·		北	规		

聖朝寬宥恩如海歡動東展得華全	為選	馬雪花明誰言此水為天輕鯨海無邊	松酒	青	制詩録司右善此溥洽應
	高寒泣雨草深名人選三京白日来	海無邊市已平	野氣白情	~青冬番冬记来	

天順四年蒼龍庚辰春三月日權 學誌 八悲且幸也	122 31	制則其始 命 圓產 輩而應	龍滑不已至

而附	想必先祖亦未得而知也先制中國人尚罕得知况海外平	御製則如日月焉照耀已久若師	御製之後以為家珍隱	制三首受讀以旋且幸且悲苦	御製三篇公録示圓庵師應	御製之賜之語謹録奉	有先祖受	京師也以祭親宴集詩卷請	擥之赴
V作而已	先升租排	以若師之應		干且悲持以東還附於	呼應			討卷請詩于倪學士讓序	

F. Commission of the Commissio	使		
皇威遠震鯨波息萬里邊睡樂太平皇威遠震鯨波息萬里邊睡樂太平皇,是一時明飲馬長河開戍卒放牛原野事農耕	听现 2	無邊 東空登丘	阿生烏努井泉喬首中天江日广青光妹跡积雲漠漠漠然家城郭草华半秋風烏噪頹垣樹夜

		縹			· · · · · · · · · · · · · · · · · · ·	
神嵩深處故宮遷景物淒涼思惘然滿目江山神嵩深處故宮遷景物淒涼思惘然滿目江山	聖主息波隨處拾普天率土入提封。	來們鄉勢奔滄海接鴻蒙分流畎畝民情悅利	寒江一派水溶溶鴨緑微茫颺晚風源出白山	鴨緑江	制計	圓庫僧録左闡教堂谷寺住持玄極頂禪師應

東年

經

學達

吨師

. 飾僧

來書

舩並 恣鬱

下宫

虎自

像瑾

鉢狗

数忌

改死

所醫

父曰

熊曰言衣朱麥之渡以指淹往諸針馬一長創

鹿是伯天欲何汝成姿青龍上降東之日 而放求何設艷河光音 車防不我酒遊綠朝雲 留天大見有則山從年宜 王即女天 龍徃婚河馬宣王戴白遣 至可河伯怒畫次也羽 宫王不云使而花丛冠浮慕都東蘭 甥為王河告熊汝曰室神有佩於漱號海弗天

後州州即定让朱文神稱卷江為郡海皆有 城至年自世武又冀緑府

為遼置府始族漢合浮松河遺利

王辰牢成大城嘉乃崇戰山中城 一即办部高 也也部部五 耨五一即族 奴部名絶-屋各前奴曰 切有部部内 長也部部 年以不踋等太班克缺 戊少餘三十宗師太出萬城

世俟来

、親進岸擊守亘日倍集

制製	網緣将以為子孫	氣象後容就意怨至而樂與人在天本違物於應曲備可見	仁之他以萬不同	と の は 、 に の に に に に に に に に に に に に に
	心之實数書	兴人為善之意	的下各得其所	

親製鴨縣古京資左等三篇新海草學主	觀游	帝覧之稱獎又不以其精華炳尉青磐盤	穿宙解析表裏耳寫夫東人意勝與夫外國之隣吾境者而先生家
肇	4210	銷	捺

